

영적부패의 원인과 결과*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piritual Corruption

김 영 종(Kim, Young Jong)**

ABSTRACT

This paper primary focuses on the research of causes and consequences of spiritual corruption from a biblical perspective. Corruption, so far, has been widely discussed in terms of an external and tangible view, but rarely from an internal and spiritual corruption. In this paper, therefore, the author discusses the spiritual corruption by conceptualizing corruption as a spiritual corruption. Furthermore, the author contends that the spiritual corruption has caused by violation of God's will, whereby resulted in committing sins based upon the Bible. As a result, spiritual corruption has created numerous incidences of social corruption. In particular, the author points out that consequences of spiritual corruption such as death, destruction, and perishment will be unavoidable. Therefore, it is so urgent to seek any preventive strategies against spiritual corruption.

In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that redemption and forgiveness by Christ as a position of Messiah will be the best strategies for curing the spiritual corruption in terms of biblical aspect. If spiritual corruption can be healed by the Christ, the clean society will be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blessing of God.

Key words: spiritual corruption, total corruption, disobedience of the divine command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숭실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I. 문제의 제기

부패문제는 한국의 국가사회에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패의 유형에 대한 외형적인 접근에 치중하여 왔지만 부패의 근원문제를 다루지 못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패문제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과 탐욕(ontological anxiety and greed)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영혼문제(spiritual problem)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 없이는 사실 부패현상의 이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부패학계(the society of corruption studies)에서는 영적인 부패(spiritual corruption)에 관한 개념정립이나 패러다임이 거의 논의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적 부패의 실체의 접근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서의 부패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 것이다.

II. 영적부패의 개념정의

1. 영혼의 실체에 대한 논의

영혼의 실체에 대한 규명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인간은 몸(corpus), 영혼(anima), 그리고 정신(spiritus)으로 구성되어있다. 영혼과 정신은 가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성경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히 4:12). 영혼은 몸보다 더 고상한 실체로서 불멸의 본질(essentia immortalis)¹⁾이다. 칼빈(John Calvin)은 인간의 몸을 가리켜 흙으로 된 집 혹은 육체의 장막이라 하였다. 그러나 마음의 특성은 몸으로 이월되고 몸의 특성은 마음으로 이월된다.²⁾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능력을 가진다. 먼저 자성과 의지의 능력이다. 여기에서 지성이란 mind이며 의지는 heart이다.³⁾ 영혼은 지휘관이나 통치자적인 역할을 말하고 의지는 지성의 지시와 정보에 따라서 행하는

1) 이형기(1997),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364.

2) 상계서, 365.

3) 이것은 칼빈의 주장이다. 상계서, 365.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은 주로 이러한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혼의 기능은⁴⁾ 사물을 판별하는 기능(inter objecta discernere), 지성의 민첩성의 기능(mentis vero humanae agilitas),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덕스러운 것을 파악하는 능력 등을 통하여 종교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sensus divinitatis) 등의 기능을 가진다. 영혼의 의지적인 기능은 위의 지성의 기능이 “식별하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선택하고 추구하는⁵⁾” 능력이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음에서 논의하여 보자.

그러면 인간은 신학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인간관에 대한 조명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인간관, 물질적 인간관, 기계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 정치적 인간관, 철학적 인간관, 심리학적 인간관, 종교적인 인간관, 그리고 신학적인 인간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인간을 조명 할 수 있다. 신학적인 인간관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라는 점이 특징이다. 칼빈은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플라톤(Platon)적인 인간관과는 다르다. 루터(Martin Luther)도 거의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⁶⁾.

요컨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창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패와 타락을 초래하여 모든 부패의 근원이 되었다.

2. 영적 부패의 개념과 특징

지금까지 우리는 부패를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여 논의하여 왔다. 즉 제도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상황 등 모두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였다⁷⁾. 그러면 영적인 부패란 무엇인가?

첫째, 영적 부패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부패를 말한다⁸⁾. 인간의 행위는 영적인

4) 상계서, 366.

5) 상계서, 366.

6) Hyung Ki Rhee(1980), *Ph.D. Dissertation at Drew*, 228-254 재인용.

7) 부패의 유형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김영중(2001), *부패학* 서울: 송실대출판부, 92-102.

8) 영적부패는 마음의 부패를 말하는데 렘 17:9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유의 산물이다. 인간의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3원론에 근거 한다 (히 4:12). 인간의 존재는 영(spirit)과 혼(soul)과 몸(body)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3원론이다⁹⁾.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영적인 동물(spiritual animal)이다. 일반적인 정신과 몸의 2원론과 상이하다. 영적인 문제가 잘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3요 1:2)¹⁰⁾. 따라서 영적 부패는 인간의 존재의 자체와 본질에서 배태된 내면적인 부패라고 할 수 있다¹¹⁾.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존재¹²⁾이기 때문이다.

둘째, 영적인 부패는 인간의 존재는 태생부터 부분적이 아닌 전적으로 부패(total corruption)하였고 또한 완전하게 부패(perfect corruption)라는 개념을 말한다. 그리고 영적부패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의 타락과 불안, 그리고 탐욕의 결과적인 산물이다.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죄인이다(sinner). 따라서 우리영혼의 전 부분에 침투된 죄의 본성과 유전성이 바로 영적인 부패의 저변을 흐르고 있다.

셋째, 영적인 부패는 부패의 보편성(universality)을 가지고 있다. 예외가 없이 누구나 부패하였다는 말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타락하였고 부패하였으며 죄인이라는 개념이다. 완전 타락설이다(로마서 3:23, 3:10, 전도서 7:20, 왕상 8:46, 욥 14:4, 시 143:2)¹³⁾. 특히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¹⁴⁾는 인간의 전적인 부

9) 성경의 몸, 정신, 영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인격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영과 육은 구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모습이다.

10) 3요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1) 구약 성경에서는 부패를 히브리어 שָׁחַת(Shachath)로 표현하고 있다. 그 원래의 뜻은 황폐하다, 멸망하다, 파멸하다, 파괴하다 (창 6:12, 삿 2:19)부패하다 (출 32:7, 신 4:15), 멸망시키다(민 32:15), 멸하다(창 9:11, 렘하 19:12), 죽이다(사 14:20, 삼하 1:14), 훼손하다(렘 12:10, 애 2:5), 더럽히다(겔 28:17), 파괴하다(사 54:16) 등이다. 구약원어 대조성경(1993),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381.

12) Georgia Harkness(김재준 역, 1963), *Christian Ethic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24-126.

13) 롬 3:23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10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전 7:20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고 하였고 왕상 8:46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욥 14:4에서는 “주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하였고, 시편 143:2에서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로 역시 의인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롬 3:10-15에서 인간의 부패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패, 특히 의지(Will)의 부자유를 원죄(Original sin)라고 한다.

넷째, 영적인 부패는 부패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영적인 부패는 모든 부패의 불씨이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는 의지의 질이 결핍되고 지성의 빛과 기억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특히 몸과 영혼의 모든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¹⁵⁾. 그 결과 부패의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받은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나 노아의 방주 사건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¹⁶⁾. 성경은 이러한 죄의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인자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였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자랑할 때(잠 20:6, 9)를 경고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인간들에게 스스로의 명철과 지혜를 믿지 말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일러준다(잠 3:5, 7).

다섯째, 영적인 부패는 일시적인 선행으로 부패를 치유 할 수 없으며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 대신 복음(Gospel)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의롭게 된다(justified by faith alone).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다¹⁷⁾. 에릭 프롬(Erich Fromm)¹⁸⁾은 인간의 타락은 신의 폭력(coercion)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자유의 첫출발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는 죄(sin)라는 것은 지식의 나무를 먹는 행위로 이것은 바로 이성의 시작이라는 것이다.¹⁹⁾ 20) 21) 이러한 견해는 기독교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악과나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의 열매²²⁾에 대하여 지적인 면에서는 불신앙과 자만

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특히 1요 1:8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한다.

14) 이형기(1997),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사, 37.

15) *Ibid.* 43. Luther는 롬 5:12-14에서 부패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본다. 이것을 욕정(concupiscentia) 이라고 한다.

16) 예전대 다음의 성경을 참조할 것 롬3:22 ; 1요 2:1-2 ; 백완기(1999), 성경과 민주주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31-239.

17) *Ibid.* 45.

18) *Ibid.* 234.

19) Erich Fromm(1941),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Avon Books, 50.

20) 최낙재(1986), 『하나님의 나라』 서울: 성서 유니온, 49. 재인용.

21) *Ibid.*, 47-48..

22) 창세기 2:17에서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 네가 먹는 말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심을 가져오고, 의지면 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욕망을 가져오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서 사악한 만족을 취하는 것이다²³⁾.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여섯째, 영적인 부패에서는 원죄(original sin)는 죄의 상태에서 죄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경우이며 자범죄(self-committed sin)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경우이다. 자범죄는 외부적인 행위의 죄와 원죄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욕망 등을 포함한다. 인간은 이러한 현실적인 죄에서도 벗어나기가 어렵다. 죄성은 부패이며 인간으로부터 바르게 사고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버린다²⁴⁾. 죄의 뿌리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다. 죄는 일반적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의식하지 못한 채 나타난다²⁵⁾.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해 준다(마 7:15-20), 사탄일 수록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후 11:13). 인간이 죄에 약한 것은 그것의 위협적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데 있다.

일곱째, 영적인 부패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한 벗어 날 수 없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인간의 부정하고 탐욕이 가득찬 영혼이 부패와 죄의 원천이요(렘 17:9),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약 1:15). 죄의 지속적인 발생을 김홍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죄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패와 타락의 본성에 의해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 후 인간은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와 같은 무죄의 세계로 돌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개개인이나 그들이 조직한 사회에서 일방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일방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가령 어떤 선을 조금 더 조장했다고 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에 따라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²⁶⁾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 surely die.” 고 하여 하나님께 대한 아담과 이브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23) Louis Berkhof(1938),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The Banner of Truth, 68.

24) 이승구 역(1987), 『기독교 세계관연구원』 서울: 엠마오, 179.

25) Henry Drummond(유호준 역, 1995),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90-291.

기독교에서의 부패의 개념은 죄의 행위보다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죄의식(sense of sin)을 강조한다. 니버(Reinhold Niebuhr)가 정의한 "죄의식은 무한성(infiniteness)에 대한 유한성(finiteness)의 인식이다²⁷⁾." 한계성의 인식이라는 것으로 '완전성에 서의 결핍'을 의미한다.²⁸⁾ 성경에서의 죄의식은 바로 한계의의식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속죄의 원리를 덧입을 때에 죄의 용서를 받게된다. 이것을 칭의(justification) 라고 한다.

여덟째, 영적인 부패는 성경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먼저 인간존재의 중심인 마음(heart)의 부패를 뜻하며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 속에서의 전염을 의미한다²⁹⁾. 도날드 블러쉬(Donald G. Bloesch)는 이러한 부패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³⁰⁾.

"영혼 속에 있는 쓴 것은 모든 모양의 악이 나오는 펄펄 끓는 가마이다. 우리의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꾀방이라고 선언하셨다(마 15:19, 참고, 마 5:28, 12:34, 눅 16:15). 죄는 인간에게 불화와 불행을 가져왔다(참고, 사 47:10-11). 그러나 죄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이다."

영적인 부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죄악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영적 부패는 영적인 죄를 포함하며 죄는 하나님의 의지를 배반(transgression of God's will)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disobedience of the divine command)을 의미한다³¹⁾. 따라서 영적 부패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거나 인간의 의지대로 행한 모든 결과적인 산물의 총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적 부패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total depravity)에 기인한다. 그 의미는 사람이 인간적인 척도의 기준에서 볼 때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26) 김홍전(1994), 『예수님의 행정』 서울:성약사, 198-199.

27) Reinhold Niebuhr(1935),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Harper & Brothers, 70.

28) 김홍전(1985), 『중생자의 생활』 서울: 성약사, 12.

29) Donald G. Bloesch(이 형기, 이수영 역, 1994),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18.

30) *Ibid.* 120-127.

31) <http://www.hyperdictionary.com/dictionary/sin>

아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된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즉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엡 2:3).”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성령으로 중생하기까지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³²⁾

III. 영적 부패의 원인과 결과: 성경적인 분석

그러면 영적인 부패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영적인 부패의 결과를 성경적인 접근에서 논의하여 보자. “영(spirit)”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솔로몬이 죽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전 12:7)고 말한 것처럼 이 말은 “영혼”과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성부께 부탁하셨다(눅 23:46)

성경에서 보면 구약시대부터 영적 부패가 시작되었다.³³⁾ 예컨대 모세(Moses)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10계명을 불순종하였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신 31:29). 모세의 이 예언은 구약의 이야기 전반에 걸쳐 반영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범죄, 하나님의 징벌,

32) 영적인 부패는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배경을 예시할 수 있다.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렘 17: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9),”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33) 박영호(2001), 성경이미지 사전,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130.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용서의 반복되는 순환을 담고 있다. 또한 예를 들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백성의 죄를 세밀하게 묘사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이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범죄하고 물러갔도다”(사 1:4).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도 완전하여 그들이 열방의 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하였다. “그 기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 하였도다”(겔 16:47).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의로부터 완전한 부패의 길로 간 타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³⁴⁾.

스테반(Stephen)³⁵⁾이 그리스도(Christ)께 자기 영혼을 위탁하였다는 사실은(행 7:59),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뜻이다. 영적부패는 하나님의 은사로부터 치유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요컨대, 인간 마음에 부여된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이 모든 것들은 불멸 적 실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소유하는 감각은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나 인간 마음은 과거사에서 미래사를 추론하며, 육체와는 분리된 무엇이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옳은 것과 의로운 것, 그리고 존경할 만한 것들이 육체적 감각에는 숨겨져 있다. 때문에 영은 지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영적 부패는 배태하는 것일까?

바울(St. Paul)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신자들을 권고하면서(고후 7:1), 죄의 더러움이 머무는 두 부분을 지적해 준다. 베드로(Peter) 또한 그리스도(Christ)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벧전 2:25)이라고 불렀다. 영혼이 자신의 고유한 실재를 가지지 못한다면 영혼의 영원한 구원(벧전 1:9) 또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는 주장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20:28; 눅 12:5)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미 깊다.

첫째, 인간의 영적인 갈증과 불가 치유 적인 종교성(incurably religious)에 기인하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출 32:1-12³⁶⁾에서 성경은

34) 전계서, 1130-32.

35) 스테반은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할 것 행 7:54-60.

부패의 원인을 흥미 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 부패한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숭배를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책망하면서 “부패하였다”고 지적한다.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한다.

둘째, 영적인 탐욕에서 부패는 배태된다. 성경은 탐욕이 부패의 주범임을 잘 말해 준다. 예컨대 약 1:15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탐욕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탐욕은 인간의 원천적인 욕망이다. 물질, 명예, 본능적인 욕구가 포함된다.

셋째, 영적인 갈증을 다른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데서 발생한다.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영적으로 충족해야한다. 그런데 물질이나 지위나 그 외에 세속적인 그 무엇을 대신 채우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한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으나 영원적이고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의 극치를 향유하여 보았으나 그는 끝내는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음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³⁷⁾. 그의 고백은 인간의 탐욕을 모두 채워보았으나 진정한 만족을

36) 출애굽기 32장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이스라엘백성은 모세의 위대한 지도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란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서 직접 관계에 속하는 것임을 명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야 하며,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참 신앙에 서지 못하였고, 도리어 보이는 우상을 사모하였다. 곧, 그들의 심리는, 애굽과 애굽 신들을 사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기어이 애굽신(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들이 부패하였다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박윤선(1981), 성경주석: 창세기, 출애굽기 서울: 영음사, 640-641.

얻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솔로몬의 욕망을 세상의 많은 것으로 채워보았으나 만족을 얻지 못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넷째, 영적부패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일어난다³⁸⁾.

다섯째, 영적 부패의 원인은 인간의 의지의 결핍에서 일어난다. 어거스틴(St. Augustine)은 이것을 선을 행할 능력의 부족으로 보고 있다. 즉 그는 죄가 인간의 의지의 타락과 선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고 있다.³⁹⁾

여섯째, 영적 부패는 아담의 불신의 죄(the sin of unbelief)로 말미암아(창 3:1-6) 만들어졌다. 원죄(original sin)는 인간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죄이며 바로 이것은 도덕적인 부패(moral corruption)의 근원이 되었다.

일곱째, 영적부패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의 기원⁴⁰⁾은 출애굽기 34:7에 등장한다: “악과 과실과 죄”, ‘악’(āwōn)은 무엇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개념이다. ‘반역’(peša)은 범죄 또는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며 ‘죄’(ḥattā’ā)는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hamartia)이며 양궁에서 표적을 빗맞추는 것과 관련된다. 파랍토마(paraptōma)는 넘어지거나 길을 잃는 것을 제시한다(합 6:6). 이와 마찬가지로 파라바시스(parabasis, 범죄)는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거나(예를 들면, 행 1:25의 유다), 적절한 한계를 넘어간다는(약 2:9)의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영적인 부패가 주는 결과는 무엇일까?

첫째, 사망이다. 롬 6:24에서 성경은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하였다. 부패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혹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처절한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영적 부패의 결과는 시편 53:1, 3절에 잘 표현되어있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영적부패는 누구에게나 전지성, 전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죄의 영향하에 있다. 즉 인간존재의 모든 부분에 죄가 침투되

37) 한영해설성경(1999;NIV) 서울: 아카페, 946-947. 솔로몬은 그의 부귀영화를 맞본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38) Donald G. Bloesh, *op.cit.*, 121.

39) Donald G. Bloesch., *ibid.* 120-127.

40) 박영호, 전계서, 1130.

어있다⁴¹⁾.

셋째, 영적 부패의 결과는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영적 부패는 불화와 불행을 초래하고 갈등을 야기 시킨다.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사회의 모든 평화를 파괴시키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온다. 영적 부패의 확산효과는 자기파괴(self destruction)와 조직파괴를 초래한다. 나아가서는 사회의 파괴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정치 관료들의 사회적 부패의 파괴력으로 말미암아 1989-91년간에 공산국가들이 멸망하였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은 영적인 부패로 인하여 일어난 파괴력(destructive power)이라 할 수 있다.⁴²⁾

넷째, 영적 부패는 행위와 상태 모두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가져온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또는 소원(estrangement)의 상태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법의 파괴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영적부패는 뜻대로부터 빛나간 것으로서 치명적인 고질병을 초래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어지럽히게 된다.

다섯째, 영적 부패의 결과로서 인간의 패망과 실패가 온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다⁴³⁾. 즉 죽음과 심판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따른다.

“죄책, 죽음, 지옥, 도덕적 노예, 영적 눈멀음이다. 죄 속에 있는 인간은 행복의 기회를 잃고 죄책에 의해서 반신불수 자 가 되고, 자신에 제어할 수 없는 힘과 능력에 포로가 된다. 인간은 죽음과 죽음 후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어둡고 불길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죄는 죽음을 동반하고 죽음을 부른다(솔로몬의 지혜서 1:11-16, 잠 8:36, 요 8:24)”. 사도는 “이러므로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선언했다(롬 5:12, 참고, 롬 6:23). 불운한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다. 영혼의 감금과 파멸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바 죄의 비극의 최종적 결과이다.”

여섯째, 그 결과로 인간의 의의 상실(the loss of righteousness), 계속적인 죄악성의 출현(the presence of a constant proneness to evil)이 일어나게 된다. 즉

41) Donald G. Bloesh, *op.cit.*, 119.

42) 예를들면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은 폐쇄주의적 급진적 구조주의에 의한 부패의 파괴력이 주범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 할 것 김 영중(2001), 부패학 사론: 숭실대 출판부, 349-380.

43) *Ibid.* 119.

인간⁴⁴)은 전적인 부패에 감염 되게 된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러한 영적 부패를 유전 받게 된다. (롬 3:10-23; 5:12-21; 8:7) 영적부패의 보편성(대상 8:46 사53:6, 시 130:3), 인간의 타락성 (depravity of man), 그리고 사망의 보편성(the universality of death; 롬 5:12-20) 등이다.

일곱째, 부패한 결과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고 하는 것처럼 심판을 약속한다. 둘째 사망이란 바로 형벌(everlasting punishment)을 의미한다. 한번 죽는 것이 아닌 두 번째의 죽음이다.

여덟째, 영적 부패는 인간을 불안⁴⁵)으로 만든다. 불안은 죄를 짓게 하고 나아가서는 결국 문제를 야기 시킨다.” 불안은 인간이 참여하는 자유와 유한성의 모순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다. 불안은 죄의 내적인 전제조건으로 자유와 유한성의 모순적 상황에서 있는 인간의 불가피한 영적 상태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본성의 영적이며 자연적 양상의 모순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영적 부패는 영적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즉 파괴성과 창조성의 혼합된 상태에 있다. 니버는 불안을 “창조성의 근원”과 “죄의 유혹”으로 본다. 불안으로부터 안정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불가피한 시도가 바로 죄를 야기 시킨다. 즉, “자유와 유한성의 인간실존을 부정하거나 극복하여, 우리의 불확실하고 제한된 실존을 절대적이고 무한한 차원으로 고양시키려 할 때, 영의 통로를 통하여 교만의 죄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자유의 무한한 가능성을 무시하여 자유로부터 오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게 될 때, 육욕의 죄가 자연의 통로를 통해 발생 한다⁴⁶).”

IV. 영적부패의 치유 전략

영적 부패는 증생을 통해서 치유된다(요 13:10). 블러쉬(Donald Blush)⁴⁷)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요일 3:9)고 듣고

44) <http://www.hyperdictionary.com/dictionary/sin>

45) 전현식(2004), “인간실존, 초월 그리고 죄에 대한 생태학적 재구성”, 한국기독교 신학 논총, Vol.32

한국기독교 학회, 151-171.

46) 상계서, 151-171.

47) Donald G. Bloesch., *ibid.* 120-127.

있다 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편향(bias)이 기독교인 속에서조차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살아입어야만 하는 이유이다(엡 4:22-32).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상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의를 향하여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실히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슬픈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에 빠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원하는 선을 우리는 행치 않는다(롬 7:19).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께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영적 부패의 치유의 방안은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다. 롬 6:23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6:23)(로마서 6:23; τα γαρ οψωνια της αμαρτιας θανατος το δε χαρισμα του θεου ζωη αιωνιος εν χριστω ιησου τω κυριω ημων) 라는 성경의 말씀은 영적 부패의 치유에 대한 방안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주시는 선물이다(요 3:16). 예수그리스도는 선물 중에 참 선물이요 은혜 중에 절대은혜라고 할 수 있다⁴⁸⁾. 영적 부패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얻는 것이 유일한 치유임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영적부패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치유는 영생을 주는 치유다. 말하자면 “영생은 구원의 최고의 목표요 목적이며 종착역이다⁴⁹⁾.”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영적부패의 죄에 계속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사망이라는 의미이다⁵⁰⁾. ‘삶’에 해당하는 헬라어 ‘ψωσνια(ψωσνια)’는 흔히 ‘병사들의 급료’의 의미로 사용된다. 비록 ‘ψωσνια’가 딤후전 5:18에서는 단순히 노동자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나머지 구절들(눅 3:14; 고전 9:7)에서는 군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군인들이 군사적인 의무에 매여 있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사람이 ‘죄의 중’으로서 죄에게 충성함으로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ψωσνια’는 그 다음에 언급되는 ‘은사(Xάρισμα)’와 대조되고 있다. 이 ‘은사’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48) 김선웅(1982), 로마서 주석, 서울: 양서각, 298-302.

49) 전계서 .., 301.

50) 강병도(1991), 호크마 종합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219-220.

받는’(4:6)것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다. 그리고 이 ‘은사’는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어(18, 22a절) 거룩이 열매를 얻게 된 (22b절)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사로 값없이 ‘의’, ‘성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며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영적 부패의 보편성을 묘사하고 있으나 치료법도 제공하고 있다. 즉 영적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영적 부패의 방지는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왕국을 설립하면 모든 부패는 폐지될 것이다.

V. 결론

영적부패는 일반적인 부패와는 판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적부패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부패이며 본질적인 부패이다. 일반적인 부패가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부패이며 표출된 부패의 결과와 산출(outputs)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영적 부패는 내면적이며 심층적이고 생태적인 부패이다. 즉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것은 규범적이거나 의사 결정론적(determinism)인 면보다는 의사 자유론 적(voluntarism)인 인간이해⁵¹⁾에서 출발한다. 영적부패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순종과 교만이 원인이며 이것은 영적 부패가 만인에게 보편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된 모든 부패현상은 사실상 외부적으로 표출된 부패에 불과하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인간의 심층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갈등과 존재의 불안, 그리고 욕망과 탐욕의 통제를 통하여서 부패의 열매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는 어떤 종류의 영적부패라도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사유와 은총이다(엠편

51) Gibson Burrell and Gareth Morgan(1982),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Elements of the Sociology of Corporate Life* London: Heinemann, 1-109.

2:8).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병도(1991), 호크마 종합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구약원어 대조성경(1993),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김선웅(1982), 로마서 주석, 서울: 양서각
김영종(2001), 부패학 서울: 송실대출판부
김철영(2000), 정의와 공동체생활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410.
김홍전(1994), 『예수님의 행정』 서울:성약사
_____ (1985), 『중생자의 생활』 성약사
박영호(2001), 성경이미지 사전,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130.,
박중훈(1999). 『공직자 부정부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백완기(1999), 성경과 민주주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오성춘(1997), 신학영성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338-35.
윤철호(1998), 예수그리스도(하)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이선호(1993), 스테판원어성경 서울: 원어성서원
이승구 역(1987), 『기독교 세계관』 서울: 엠마오
이형기(1997),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사
장준오(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현식(2004), “인간실존, 초월 그리고 죄에 대한 생태학적 재구성”, 한국기독교 신학
논총, Vol.32 한국기독교 학회, 151-171.
정영국 외(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선일보, 2003, 11, 21
중앙일보, 2003, 10, 18
중앙일보, 2003, 6, 18
최낙재(1986), 『하나님의 나라』 서울:성서유니온
칼빈(1977, 김문제역), 기독교강요 서울: 세종문화사

한영해설성경(1999;NIV) 서울: 아카페

[http://calvary-e.com/성경 20공부/참고 20file/신앙 20인물/](http://calvary-e.com/성경_20공부/참고_20file/신앙_20인물/)

2) 외국문헌

Berkhof, Louis (1938),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The Banner of Truth, 1938.

Bloesch, Donald G.(이형기, 이수영 역, 1994),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18.

Burrell, Gibson and Morgan, Gareth(1982),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Elements of the Sociology of Corporate Life* London: Heinemann.

Drummond, Henry(유호준 역, 1995),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Harkness, Georgia(김재준 역, 1963), *Christian Ethic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Kim, Young Jong(2003), *New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Corruption Studies* Seoul: Hyung-Seul Publishing Co.

Kummel, Werner Georg(1973),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Nashville: Parthenon Press

Laymon, Charles M.(1971), *The Interpreter's One-Volum Commentary on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Lewis, Carol W.(1991). *The Ethics Challenge in Public Service*. Washington D. C.: ASPA.

Lingenfelter, Sherwood G.(1995), *Transforming Cultu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Niebuhr, Reinhold(1935),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Harper & Brothers,

Spradley, James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저자약력

김영종 : 미 플로리다 주립대 행정학 박사
 승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부패학회 초대 창립회장
 저서 “부패학” 등이 있다